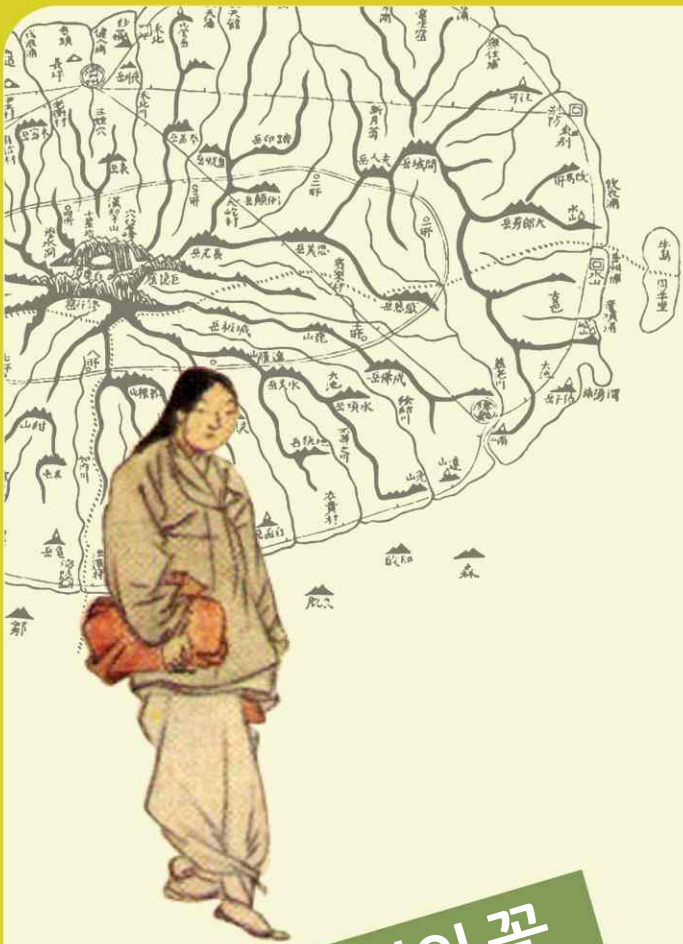


상자를열면? 목판木版 체험상자 인쇄 문화의 꽃,

국립제주박물관 학교연계프로그램
보급형 교구상자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학교 현장의 교과과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목판 체험 상자] 교구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목판 체험 상자]의 활용을 위한 안내서로, 사용된 이미지와 놀이방법은 한국문화콘텐츠닷컴의
허가를 받고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국립제주박물관 / 기획: 이애령(학예연구실장) / 진행: 한지윤



인쇄문화의 꽃 목판木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책 인쇄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판 인쇄>입니다. 글자나 모양이 거꾸로 새겨진 면에 먹물을 바르고 찍어내는 옛 인쇄 기술이지요, 우리가 지금 많은 양의 종이를 인쇄할 수 있는 것도 목판인쇄술의 발전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목판인쇄木版印刷의 역사

한국의 목판 인쇄술은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쇄문화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으로 1966년 10월 경주의 불국사 경내에 있는 석가탑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불경이 모셔졌던 석가탑이 751년 김대성(金大城)에 의해 불국사가 중창될 때 세워졌으므로 이 불경은 신라시대 무렵 간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려에 전승되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가운데 목판 인쇄의 최고라고 일컫는 고려의 대장경(大藏經)이 탄생했습니다. 대장경은 불교 경전을 비롯한 불교관계 서적을 집대성한 불교총서를 말합니다. 고려 대장경은 11세기와 13세기 두 차례에 걸쳐 판각되었는데 처음 제작된 것을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 다음에 제작된 것을 재조대장경(再彫大藏經)이라고 구분합니다. 처음 제작된 초조대장경은 1232년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며, 우수한 판각과 많은 양으로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로 지정한 합천 해인사의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이후 다시 조판된 재조대장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물 소개

김홍도金弘道 단원풍속도첩 -무동

춤추는 아이

김홍도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그린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로 불립니다. 풍속화의 대가인 김홍도金弘道(1745~1806 이후)는 다양한 계층의 서민들을 관찰하여 그들의 일상을 특유의 익살과 해학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김홍도가 40대 전후에 그린 것으로 추측되는 <단원풍속도첩(보물 527호)>에는 스물다섯 점의 그림이 실렸는데, <서당>, <발길어>, <씨름>, <무동>, <가와이>, <대장간>, <주막>, <우물가>, <벼타작> 등 조선시대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흥겨운 장면을 그린 이 그림에서는 피리 돌, 대금, 해금, 장구, 북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는 무동의 춤사위와 휘날리는 옷자락에서 신명이 느껴집니다.

특히 춤추는 아이의 긴 소매자락과 휘날리는 띠의 옷 주름이 과감하고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어 신명나는 춤사위가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 체험물 크기: 약 가로 29cm×세로 48cm
* 체험용 한지 크기: 가로 34cm×세로 53cm 권장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金弘道 단원풍속도첩 -고누놀이

자연이 놀이터

고누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즐기던 놀이의 하나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입니다. 고누는 오랜 세월을 거쳐 전해져 온 탓에 고니, 꼬니, 끈질이, 고노 등으로 부르는 이름마저 다양합니다. 또한 각 놀이판의 이름도 다르고 같은 놀이판이라도 지방에 따라 그 놀이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체험물 크기: 약 가로 34cm×세로 25cm
* 체험용 한지 크기: 가로 39cm×세로 30cm 권장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김홍도金弘道 단원풍속도첩 -서당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단원풍속도첩>에 있는 스물다섯 점의 그림 중 하나이다.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옛날 학교나 다름없는 서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훈장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은 학생은 한 손으로 대님을 매고 다른 손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과 훈장님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마치 학생들 모여 앉아 있는 익살스러운 모습 속에 당시 수업을 받으며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그림 넘어서 재잘재잘 들려오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드는 그림입니다.

* 체험물 크기: 약 가로 34cm×세로 25cm
* 체험용 한지 크기: 가로 39cm×세로 30cm 권장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오윤행실도 중 누백포호妻伯捕虎

효심이 지극한 누백의 이야기

『오윤행실도』는 책의 첫머리에 서문(序文)과 발문(跋文)이 있고 이어 총 105명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1에는 효자 33명, 권2에는 충신 35명, 권3에는 열녀 35명, 권4에는 형제 간 우애를 극진히 한 24명과 부록으로 종족(宗族) 간에 화목한 7명, 권5에는 친구 간의 도리를 다한 11명과 부록으로 스승과 문하생(師生) 간의 도리를 다한 11명의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효자 4명, 충신 7명, 열녀 6명 등 17명이 수록되었습니다. 고려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죽음을 택한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이야기 「몽주윤명(夢周殞命)」, 개루왕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눈먼 남편을 따라 함께 도망간 백제의 열녀 도미의 아내 이야기 「미처해도(彌妻偕逃)」 등이 우리나라의 충신, 효자, 열녀의 사례로 실려 있습니다.이 중 「누백포호(妻伯捕虎)」는 아버지를 죽인 호랑이를 잡아 복수한 고려 때 수원에 살던 효자 최누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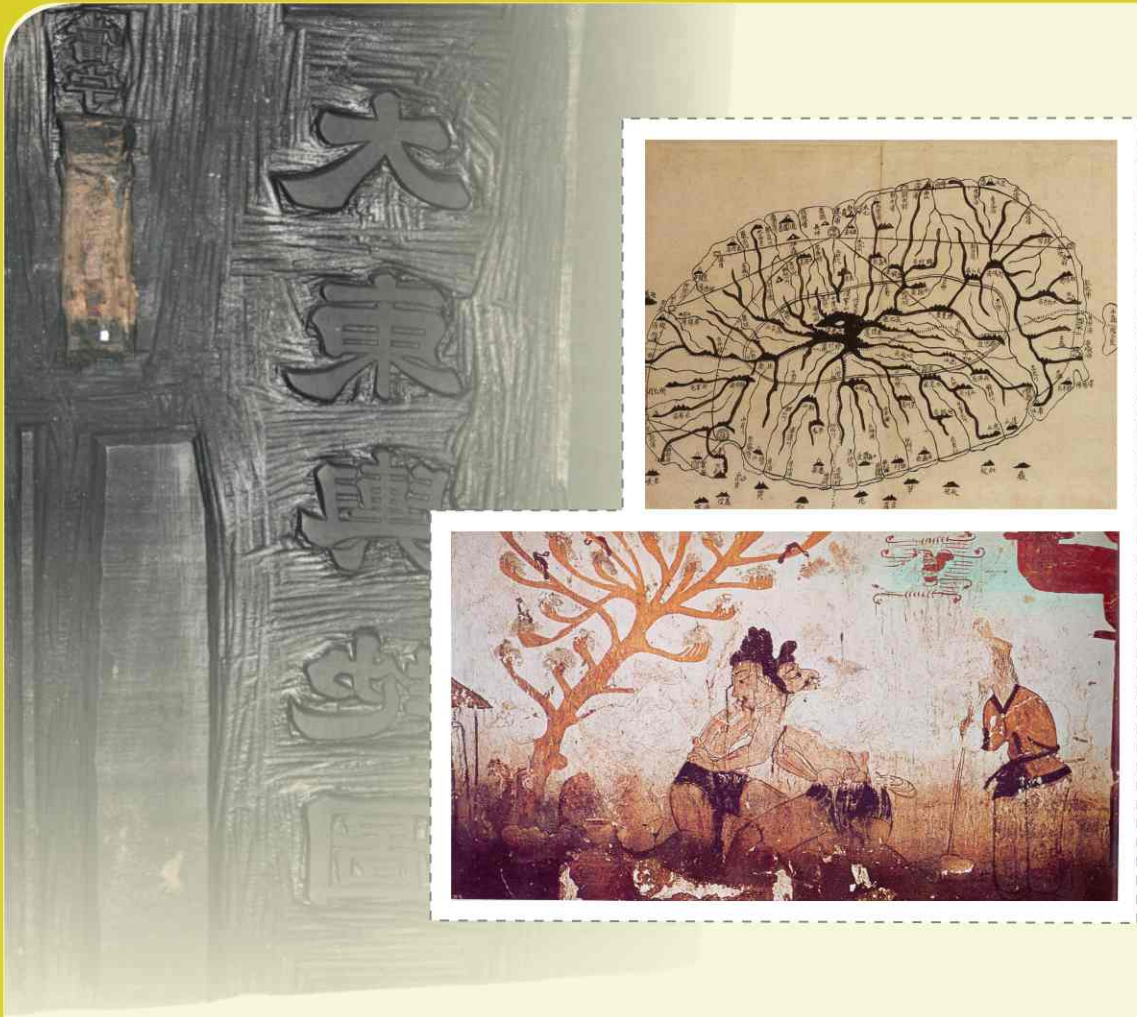
* 체험물 크기: 약 가로 27.5cm×세로 56cm
* 체험용 한지 크기: 가로 32cm×세로 61cm 권장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상자를열면? 목판 木版 체험상자

인쇄 문화의 꽃,

국립제주박물관 학교연계프로그램
보급형 교구상자



대동여지도목판大東輿地圖木板 중 제주도

전국 방방곡곡이 한눈에, 대동여지도

김정호(金正浩)가 새긴 <대동여지도(보물 1581호)>의 제작 시기는 1861년이고 이후 몇 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쳤다. 각종 지명, 산줄기, 하천, 역, 봉수(烽燧) 등 다양한 요소를 기호로서 표시하였는데 판각의 기법이 매우 정교하다. 목판에는 수정했던 흔적도 남아 있는데, 이전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좀 더 나은 지도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그 중 제주도의 부분만 체험물로 다시 제작하였다.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 40cm×세로 30cm
- * 체험용 한지 크기: 가로 45cm×세로 35cm 권장
- ◆ 소장: 국립중앙박물관

각저총角抵塚 씨름도

으랏차차! 씨름도

중국 길림성 집안현 태왕향 우산촌 우산 남쪽 기슭에 무용총과 나란히 자리 잡은 고분이다. <각저총>이라는 이름은 최초 조사 당시 무덤 방 왼쪽에서 발견된 바로 이 씨름도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씨름을 일컫는 각저(角抵)와 무덤의 총(塚)이 조합되어 <각저총>이라고 부르며, 북한에서는 씨름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작은 기와 집 곁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나무 가지 끝에는 검은 새 4마리가 앉아 있다. 나무 곁에서는 두 장사가 짧은 바지를 몸에 걸친 채 서로를 마주잡고 씨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그 곁의 백발 노인은 씨름의 심판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 * 체험물 크기: 약 가로 55cm×세로 28cm
- * 체험용 한지 크기: 가로 60cm×세로 32cm 권장
- ◆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원고 부분 인용

목판 인쇄 준비사항

[교구상자 준비사항]체험물, 고무롤러, 문진, 구두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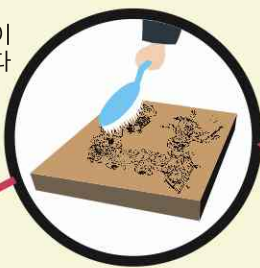


[개별준비] 규격에 맞는 한지, 먹물, 롤러, 쟁반



목판 인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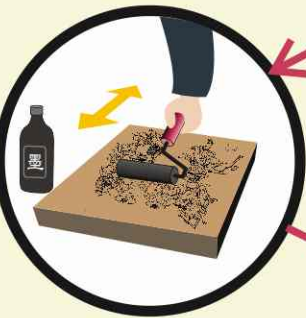
솔로 깨끗이
청소합니다



목판에 물을 살짝 뿌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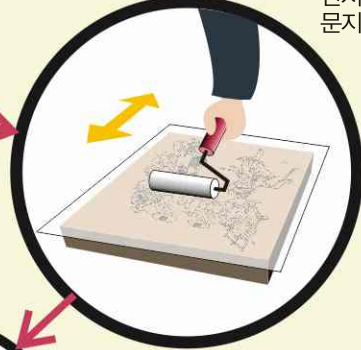
목판의 글자나 그림부분위에
롤러로 먹을 골고루 칠합니다.
*이때 먹물이 너무 많이
묻지 않도록주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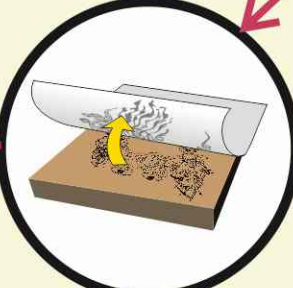
한지를 먹물이 마른
목판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올려놓아요



먹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롤러로
한지가 들뜨지 않도록
문지릅니다.



한지를
조심스럽게
목판에서
떼어 냅니다



멋지죠~

